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

8.24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24(목) 오전 0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8. 23. (수)	담당부서	수출입과
담당과장	이원희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정민규 사무관(044-203-4042)

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, 수출점검회의 계기 탈세계화·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대응방향으로 3대 전략 제시

- ❶ 원칙에 입각하여 주요국 보호무역주의에 당당히 대응
❷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로 수출시장 저변 확대
❸ 통상·산업 연계로 신산업 트렌드에 부합한 통상정책 전환

- 8월 수출도 증가하여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 전망 -

- 「대중(對中)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」 발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: 백운규)는 8.24.(목) 오전 9시,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**로 **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첫 「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」**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회의는 **11개 주요 업종별 협회·단체** 및 **코트라·무역보험공사**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, **①8월 수출동향 점검**, **②대중(對中)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**, **③유관기관 하반기 수출지원 활동계획**, **④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**, **⑤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** 등을 논의했다.

* 반도체협회, 자동차협회, 자동차협동조합, 조선협회, 전자정보통신진흥회, 철강협회, 석유화학협회, 석유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섬유산업연합회, 디스플레이협회

□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은 "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**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번영할 수도 없고,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.**"라 강조했다.

○ 하지만 "**탈세계화**(Deglobalization)와 **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**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으며, 특히 **동북아**는 **해양세력과 대륙세력**간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**지정학적 단층지대**가 되었다."라고 말하고

○ "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·통상 전략 방향으로서 **원칙에 입각하여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**하는 동시에, **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**하겠다."라고 강조했다.

○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**정부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**했다.

❶ **첫째**, 주요국들의 **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**할 방침이다.

-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**국격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**시킨다는 근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고,

- 특히, **중국의 대(對)한국 조치**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**양자·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 제기**하고,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**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**될 수 있도록 **무역보험, 수출 마케팅** 분야에서 **파격적·선제적**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❷ **둘째,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**한다.

- 소수 주요국가와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, 아세안(ASEAN)·인도·유라시아·중남미 등 **유망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**하여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의 주도권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.

❸ **셋째, 통상과 산업을 더욱 긴밀히 연계**할 예정이다.

- **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**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**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수요에 부응**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,

- **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·통상 로드맵을 마련**하여 수출 품목 다변화와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.

□ 이번 수출점검회의 결과 **주요 업종별 협·단체**는 **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**와 **주력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**으로 **8월 수출**도 지난달과 같이 **증가세를 이어나갈 것**으로 전망했다.

○ 특히, **반도체·철강·석유제품** 등이 **두 자릿수 증가율**로 **총 수출 증가를 견인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반도체) 메모리 가격 안정세 및 수요 강세 지속,
(철강) 프로젝트성 철구조물 수출, 단가 상승, (석유제품) 단가 상승

○ **8월 수출 증가시**, 지난해 11월 이후 **10개월 연속 수출 증가**이며, 이는 **'11.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처음**이다.

□ 이날 회의에서는 **"대중(對中)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"**도 집중 논의되었으며, 정부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**추경을 활용한 파격적 지원과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**하는 한편, 수출구조 쇄신을 위해 아세안(ASEAN)·인도 등 **신흥시장 진출을 촉진**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위해 우선, 정부는 **무역보험을 통해 피해기업*** **무역금융 애로를 총력 지원**할 방침이다.

* 피해기업 판정기준 : ①전년대비 對중국 매출액 또는 수출액 30% 이상 감소,
②중국 현지바이어와 계약 취소, ③대중수출품 통관 애로기업 등

❶ 9월부터 대중(對中) 수출피해 중소·중견기업이 신흥시장 진출시 올해 말까지 **보험한도 2.5배 특별우대, 보험료 60% 할인 신규 도입 등 파격적 인센티브**를 제공한다. 또한 금년도 추경자금으로 **중소·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약 1.4조원**의 **단기수출보험***을 지원한다.

*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

❷ 피해기업 대상으로 **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**한다.

- 9월부터 수출 곤란으로 **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**에 대해서는 1년간 **수출신용보증**을 통해 **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**하고 **보증료도 50% 신규 할인**할 계획이며,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**선적전 수출신용보증**의 경우 금일부터 1년간 **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 없이 계속 이용**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* 일반적으로는 매출 또는 수출이 전년대비 20% 이상 급감한 기업 대상 보증한도 감액

- **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**에 대해서는 금일부터 1년간 **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**(2개월→4주 이내)하고,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**보험금을 선지급**(70~80% 이내)한 후 정산할 계획이다.

- **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**에 대해서는, 금일부터 1년간 **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**를 **최대 30% 할인**하고 **무보의 책임비율도 100%로 우대**(통상 95%만 책임)한다.

❸ 자동차부품, 소비재와 같은 **피해 예상업종을 대상**으로 향후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보다 **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**한다.

- **개별기업들이 따로 보험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** 5만불 이내에서 **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**을 받을 수 있도록 **업종별 협·단체와 중소·중견플러스 단체보험*** **체결을 확대**할 계획이다.

* 협·단체가 보험료를 대납하여, 회원사 일괄 단기수출보험 가입
(9월중 화장품협회, 식품협회, 생활용품협회 등 대상 설명회 개최)

- **자동차부품**의 경우 **업계 실태조사**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**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**(9월 잠정)할 방침이다.

○ 한편, 정부는 무역보험 지원과 병행하여 **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**하여 **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**할 계획이다.

❶ 올해 **추경자금으로 피해기업에 수출마케팅을 우선 지원**한다.

- **피해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**하고 **전시회 1회당 지원한도도 2배로 대폭 확대**(5백만원→1천만원)할 예정이며,

-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적격 중소·중견기업과 매칭시키는 **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참여 시에도 우선 선발**한다.

- 또한 화장품, 패션·생활용품 등 **소비재 수출 피해기업**들이 **수출상담회, 해외 상품전 참가시 우선적으로 지원**한다.

❷ 대중(對中) 피해기업이 아세안(**ASEAN**)·**인도 등 대체시장 진출시 마케팅 애로 해결을** 지원할 계획이다.

- **현지 영업망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**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해 **대기업,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흥시장에 동반진출**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, 신흥시장 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해외 무역관이 중소·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**지사화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**(30개사)한다.

- **기업 인지도 미약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**을 위해 인니·베트남 등 한류 유망지역 중심으로 **한국 대중음악(K-Pop) 공연과 연계한 한류 상품전을 집중 개최**하고, 한류스타의 **중기제품 화보 제작**, 한류 콘텐츠(드라마 등)와의 **간접광고(PPL) 매칭** 등 **한류마케팅**을 강화한다.

- **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미비**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해외 유력 온라인 쇼핑몰(라자다, 플립카트 등)과 연계하여 **"코리아 세일페스타" 기간 중 한국상품 온라인 할인전을 개최**한다.

❸ 신흥시장으로의 **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**도 보강한다.

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내에 아세안(ASEAN)·인도 등 **신흥시장 수출 지원을 전담**하는 **「전략시장진출지원단」**을 8.1일부터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,

- 해외 무역관 인력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아세안(**ASEAN**)·**인도지역 인력을 보강**하고, **인도 콜카타 무역관을 새로 개소**(11월)할 예정이다.

□ 이어서, **"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"**도 논의하였다.

○ 산업부에 따르면 **최근 수입규제 품목 범위**가 전통적 대상인 **철강** 외에, **섬유·기계·가전 등으로 다양화**되는 추세이며, 미국 등을 중심으로 **규제의 강도도 심화**되고 있는 상황이다.

○ 이에 정부는, **「민관합동 수입규제협의회」**를 통해 **업종별 애로를 수시로 점검**하고, 통상장관회담·주요20개국(G20) 등 **양자·다자채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애로를 제기**하는 한편,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(**WTO**) **제소**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.

○ 또한 기업들의 수입규제에 대한 이행과 자체 사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**업종별 설명회·세미나를 확**대하고, **정례적으로 동향 보고서를 제작하여 업계와 공유**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**총 76건의 업계 애로사항**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하였으며, 산업부는 이중 **20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**했고, **44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**에 있다고 밝혔다.

○ 애로를 수용한 대표적 사례로는 고시 개정을 통한 **전략물자 수출 신청서류 간소화** 추진,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등 **원산지 절차 개선**을 위한 한-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(CEPA) 개선협상 추진 등이 있었다.

○ 이 외에 **중국 진출 중소·중견기업** 대상 **금융권 차입 원금·이자 상환 유예 요청** 등 **10건의 애로사항이 새롭게 제기**되었으며, 향후 수출 점검회의시 애로해결 추진 경과를 공유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정민규 사무관(☎044-203-40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